

시게노부
메이와
시게노부
후사코,
아다치
마사오의
원정

그리고
27년간 부재한
이미지

2014년 4월 2일부터 11월 22일까지 열린 S&MA 시상식에서
다들 알고 있는 VIVO의 최지민 대표가 2014 S&MA 최우수 경영인상을 수상했다.

— 10 —

我于1990年12月25日在《光明日报》发表《中国要实行“三权分立”吗》一文，指出中国不能照搬西方“三权分立”制度，中国实行的是人民代表大会制度。



원정(아나바시스): 연대기

401- 페르시아 왕의 동맹인 키루스 2세의 용병들이 아나
399 플리아를 가로질러 행군하다. 바빌론 인근의 티그
R.C. 라스 강을 건널 때, 키루스 2세는 그의 형인 아르탁
세르세스 2세에게서 왕위를 빼앗으려는 본심을 드러
낸다. 그리스 용병들은 무나사 전투에서 페르시아군을 압도
하지만, 키루스 2세는 왕을 공격하다 복수를 잃고 만다. 그리
스인들을 페르시아로 데려온 지휘관, 그들이 본 바친 지휘관
이 갑자기 죽은 사건은 '아나바시스'의 알려진 그리스인들
이 겪, 즉 바다에 닿아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갈пам
없이 떠지의 행력을 해치는 어종의 사각이 되었다.

391- '아나바시스'가 쓰인 시기는 '1만 명의 후퇴'로도
371 할 알려준다. 비록 수수께끼의 인물인 데미스트로
R.C. 테스-크세노폰이 기록한 뿐 아니라 끌고 나가기
도 하는 이야기에 객관성을 더하고자 의도한 가설
-의 이름으로 쓰여졌지만, 이 이야기는 소크라테스의 제자
이기도 한 크세노폰의 군사 회고록이다. 키루스 2세의 원정
에 참가하는 역할로 함께 한 크세노폰은 결국 그리스 용병 배
전병들에 의해 추방 지휘관으로 선출되어 여정의 주인공이
된다. '아나바시스'는 길을 잃고 막막했던, 재차에서 쫓겨
나 안간들이 고향을 향해 가는 여정을 일컫는다. 크세노폰의
회고록에서, 이 말은 페르시아에서 그리스인들의 존재감에
의미를 주었던 군사작각이 붕괴했음을 상징한다. 단 하나의
사건으로, 그들의 지위는 영웅에서 적군의 말에 있는 여방인
으로 변했다. 3세기 전 오디세이에서 이야기되었던 여정
과 같이, '아나바시스'는 군사 회고록의 형태를 주월해 수월
이 많이 인용되는 문학작 알레고리가 되었다. '아나바시스'
는 '여정에 오르다'와 '돌아오다'를 동시에 뜻하는 그리스
어 돌아 *anabasis*에서 유래한 단어이다. 이후 이 단어를 편
용한 지각들의 제보를 위해, '아나바시스'는 연결되어 있으
면서도 반대되는 의미를 갖는다. 즉, 고향을 향한 남행과 세
로온 것 안에서 순행을 만들어내는 것.

1924 장작 노획상을 받게 될 알렉시스 제제가 중앙 아시아
마 여행에서 영감을 받고 세인트-존 피스라는 필명
을 처음으로 사용했 시 모음집인 '아나바시스'를 발간하다.
T.S. 엘리엇이 1930년에 한 번역에는 다음의 제 행이 들어
있다.

사공의 나리, 내 것이
아니구나, 내게 이 세상은 여방에 동요하는
를 잃고의 전쟁을 주었다는 거다...

1963 곡을 행한(파를 한별의 필명)이 '아나바시스'라는
제목의 시가 포함된 시집 '아무도 아닌 자의 말'을
을 발간하다. 비하일 합부르거가 독일어에서 영어로 번역하
었다.¹

이렇게
정체를 아이작에게 처한
사다르-군인의
올라갈과 가운데 행해지는 의례로
대해...

가치...

중요한-
말다세, 바다-
말다, 말다
사망하기는 많은 것을 내어...

그 다음에,
종교,
현상-아름답게 휘어지고는
조용히 사라
되는데,
근심과 부끄러움, 모자름-
종교의 이름,
은, 은-
made impossible
over,
말다-
말다지고, 안으로-
말다지고, anastasis,
을 수 있는 것, 잃을 수 있는 것, 그렇게
자유
모아 온 장막의 말.

말다 되는데,

1999 20세기가 어떻게 "저 자신을 숙고하는지"에 관해
파리 국제 철학 대학교에서 열린 일련의 학회에서
철학자 일련 바디우가 파무리를 향해가는 세기의 규칙을 일
명하는데 '아나바시스'를 사용하다. 아나바시스는 학회의 여
일 번 제 세미나 제목이었다. 바디우에게 이 단어는 그 자체
가 지칭하는 움직임 안에서 "정해지지 않은 부분들이 각자
각 같은 개입과 불명확한 표류에 해당되도록 한다. 그렇게 함
으로써, '아나바시스'는 의지적 방향의 이질적 증상을 구축
한다." '아나바시스'는 단순히 돌아오는 것만은 아닌 새로운
것으로의 여정으로 기술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아
나바시스는 방랑 이전에는 회귀-의-집으로서 존재하지 않았던
회귀. 바로 이러한 회귀가 될지도모를 발상을 자유롭게 할
조하기 때문"이다.²

1
전국 문예진흥위원회 번역위원회
4차년도(2013) 번역 사업의 일환으로,
2013년에 발간되었음.
2
장작 바디우 지, 역행행, "아나바시스",
4세기(2014년), 2014, 152쪽

아다치 마사오, 시게노부 후사코 & 시게노부 메이 — 연대기

- 1939 아다치 마사오, 후쿠오카에서 태어난다.
- 1945 시게노부 후사코, 도쿄에서 태어난다.
- 1959 아다치 마사오, 니혼 대학교 영화학 프로그램에 등록하다.
- 1965 시게노부 후사코, 베이징 대학교 역사학 지리학 프로그램에 등록하다.
- 1967 아다치 마사오는 <발공기>(1961), <세름>(1963) 등 몇 편의 실험영화로 호평받은 뒤 각본가로 일하기 시작한다. 또한, 설적인 내용을 주로 다루는 “핑크영화”의 가장 위카라쓰 고지와의 오랜 협업을 시작.
- 1968 일본 권역에서 좌익 학생 단체들이 대규모 시위를 조직해 대학의 무력에 항의하고 ‘미일 상호방위조약’(ANPO)의 결선에 반대, 베트남 전쟁에 대한 일본의 불문규정에 반대하고가 했다. 학생운동은 시위대, 경찰, 군부당파들이 폭력적으로 충돌하며 확대되었다. 나라타 공할 건설 반대 운동, 미 공군 연료를 실은 기차의 기적지인 신주쿠역에 대한 점거, 명문대인 도쿄대학교 점거가 주요 사건으로 운동들 촉발하였다.
- 1969 아다치 마사오, 미래에 일본에서 일어날 정치적 전개를 기문나할 정도로 내다본 다수의 급진적 정치영화 / 핑크 영화 가운데 첫 번째인 <여학생 게릴라>를 쓰고 감독하다. 군부무기를 폭력 산속에 게릴라 소굴을 꾸미는 고등학교 상급생들을 그리는 이 영화는 이후 작업들에 등장하는 주제인 성태방과 혁명의 정치, 또한 사회적 해방에 대한 욕구의 반복적 주제로 떠오르는 폭력에 대해서도 물을 잡았다. 해방사들이 아다치 마사오가 각본을 쓴 영화들이 너무 섹스적이란 이유로 작품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기 시작하자, 위카라쓰 고지는 아다치 마사오에게 대규모 어즈부라는 이름으로 <여학생 게릴라>(그리고 이후 제작한 여러 영화)의 각본을 써달라고 제안한다.

한편, 학생운동 내부에서는 급진적으로 변한 여러 좌익 분파들이 나타나고, 폭력 충돌에서 서로 다투었다. 경찰은 도쿄대학교 점거가 수 개월 동안 이어진 뒤 점거 세력을 습격해 몰아냈다. 경찰의 탄압이 거세지고 기존의 신좌익 세력에 군림이 일어나는 가운데, 적군파가 무장 혁명 투쟁에 헌신하는 지하 운동으로 창립되었다. 시게노부 후사코는 도쿄에서 활동하는 적군파 단원이 된다. 그해 11월, 적군파 단원 53명이 총리 습격을 준비하던 중 체포당하는 일이 발생한다.

아다치 마사오는 아나키즘 이론가인 마쓰다 마사오가 진화학과 집단의 일원으로 <AKA 연쇄살인마>를 공동 감독한다. 86분 길이의 이 영화는 일본 영도의 연다섯 군데 장소에서 일러스트를 그린 풍경의 몽타주도 이루어졌으며, 나가야마 노리코라는 젊은이가 홋카이도에서 태어나 도쿄에서 체포되기까지 평생에 이르도록 방황하는 과정을 뒤쫓는다. 영화는 아다치 마사오의 보이스오버와 함께 시작한다.

1969년 가을, 네오사에서 내 전의 공연사건이 일어났다.
네오사코도, 같은 용어 코였다.
1969년 봄, 19세 소년은 체포되었다.
그는 “연쇄 살인마”로 불리게 되었다.

소외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비판을 사람이 아니라 풍경에 집중함으로써, <AKA 연쇄살인마>는 다큐멘터리라는 형태에서 일어난 미학적, 정치적 전환을 대변한다. 아다치 마사오와 마쓰다 마사오는 무기로서의 영화라는 공격적 이상을 다시 개념화하려는 단순하면서도 급진적 시도에서 일상의 풍경으로 둘러 도처에 존재하는 국가 권력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써 “후레이온”, 즉 풍경론을 도입한다.

1970 3월 31일, 적군파 단원 아홉 명이 일본 항공 ‘요도’호를 납치해 북한에 착륙하는 극적인 사건을 벌인다. 탈변위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ANPO(미일 상호방위조약)가 조인을 앞두고 되고, 대규모 학생 동원의 불출발함에 대한 인지가 이뤄진 상황에서 경찰이 학생 운동들을 강력하게 압박하자 무장투쟁으로의 전환이 일어나게 된다. ‘요도’호 납치 사건은 무장 단체들의 발발이 경제 노출에 초점을 맞춘 직접 행동으로 옮겨가는 것을 일러준다. 폭력의 전력이 무기 탈취와 은행 강도에서 경찰서에 대한 폭탄 공격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1971 '요도' 작전이 적군파를 선전하는 데 성공을 거둔 것으로 받아들여진 반면, 실제적으로는 조직의 바비가 떨어진다. 지휘부가 북한에 고립된 가운데, 적군파는 이윤의 소지가 있는 세 지도부를 선출한다. 시게노부 후사코는 조직의 권력을 혁명의 국제화로 집중할 것을 주장했다. 적군과 지도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레피토 나가 다른 급진 조직들과 연결을 형성한다. 경찰 제로 기록으로 여러 망명이 불가하나, 범법 기록이 없는 오쿠다이라 츠요시와 결혼해 공식적으로는 오쿠다이라 후사코가 된다. 2월 28일, 두 사람은 신혼여행을 가자해 베이루트로 향한다. 베이루트에서는 알스주의에 경도된 팔레스타인 해방 인민전선(PFLP)과 접선한다.

도쿄에서는 적군파가 혁명 과와 연합조직과 합병해 연합적군을 형성한다. 은행강도의 훈련 무기로 자금을 마련한 연합적군은 일본 중부 산간의 오지리 훈련장에 다시 모여 훈련한다.

아다치 마사오가 자본을 쓴 와카바쓰 고지의 영화제작 <엑스 팩>이 칸느 영화제 감독주간에 선정된다. 아다치 마사오와 와카바쓰 고지는 영화의 성공으로 거둔 수익금으로 칸에서 돌아오는 길에 베이루트에 들러 팔레스타인 무장해방단 다류멘타리를 촬영하기 시작한다. 레파는 현지에서는 PFLP 인본국에서 일하고 있던 시게노부 후사코를 레파는 봉역자 겸 가이드로 채용한다. 베이루트, 레바논, 레바논과 요르단의 팔레스타인 난민수용소에서 촬영한 이들의 영화는 '후게이론'에 따른 풍경 이미지와 팔레스타인 게릴라 훈련, PFLP 지도자들과의 인터뷰, 시게노부 후사코의 이론적 달론, 일본 적군과 연설을 한데 뭉치면서 공격적인 뉴스/선전 다류멘타리 이론의 원형을 전개한다.

<적군과 PFLP: 세계전쟁선언>은 요도 호 사건과 근대에 발생한 "일본 9월" PFLP 항공기 납치 사건을 다룬 뉴스 이미지와 아래 내용을 선언하는 보이소오버를 덧붙이며 시작한다.

최고의 보좌관을 명하는 바로 우리를 주장하다.

이 영화가 극장 상영 플랫폼리스트에 오르자 아다치 마사오와 와카바쓰 고지는 짧은 버스에 이동식 상영 시스템을 갖추고 일본 전역을 돌아다닌다. 상영 자체를 두명도조차 돌원을 위한 정치적 형식이자 플랫폼으로 선언하는 것이다. <영화비평>지 10월호에서, 아다치 마사오는 본인의 어명일지에서 몇 단락을 발췌한다.

나는 두 가지 목적을 고려했다. 내가 왜 PFLP와 연합의 플랫폼을 "언어"로 옮겨가려 하는가. 1. 3개월의 훈련을 받는 과정에 알다시니오트 조종을 준비는 내 내내에 한계를 무시하고 계속 영화를 찍는다면, 크레딧 라임을 맞추려는 건 아니었다.

1972 1월과 2월에 하루마 산에 있는 기지에서 하루마진 연합적군 훈련 중, 연합적군 단원 열두 명이 가학적인 자아비판과 숙청 과정에서 동료들에 의해 폭행당하고 고문당해 목숨을 잃는다. 자아비판이 부족해 보인 단원들은 나무에 묶여 숲 속에서 임이 죽도록 버려졌고, 다른 단원들이 내었던 8개월과 임신부도 목숨을 잃었다.

2월에는 숙청을 기획한 지도자 두 명과 살아남은 연합적군 단원 여섯 명이 경찰에 체포당하고, 도망친 다섯 명은 아사카 산소 산에 있는 산장으로 피신해 산장 관리인의 아내를 인질로 삼는다. 경찰과의 대치가 열흘 동안 계속되며 경찰관 두 명과 민간인 한 명이 목숨을 잃고, 연합적군 관은 세력은 모두 체포된다. 하루마 산의 숙청 장소에서 시체들을 임시로 매장한 현장이 발견되고, 아사카 산소의 대치 현장이 지속적으로 텔레비전으로 중계되며 급진 과와 집단에 대한 대중적 반발이 거세진다. 이로써 선풍적이고 진보 운동의 물이 시작된다.

같은 기간 동안, 아다치 마사오는 대구치 이즈무라는 가명으로 와카바쓰 프로덕션의 영화 <천사의 황홀>을 쓰고, 직접 단역을 맡아 연기하기도 한다. 적군과 단원도 영화에 여럿 등장하는데, 이들은 19세기 프랑스 혁명가인 루이 오귀스트 볼랑키가 만든 비밀 조직인 '계절적'을 만 암호명으로 활동하는 지하조직의 활동가도 등장한다. 비군 기지에서 폭탄을 훈련 뒤, "10월" 조직은 경찰 본부에게 잔혹하게 공격당한다. 이 영화는 노골적인 레스킨 시퀀스와 하루마의 무적열대 공격에 응호하는 과적분자들의 이론적 토론으로 이루어지며, 감춰진 프리제트 사운드트랙 위로 폭발이 확산되며 막을 내린다. 영화에서 폭발당하는 신주쿠 경찰서는 이후 실제로 크리스마스이브에 일어난 폭탄 공격의 목표물이 된다.

아다치 마사오와 <AKA 연쇄살인파>를 공동 감독한 비평가
이자 동료 여행자인 마쓰다 마사오가 <마프 세이버 길드
(ATG) 지널> 93호에 다음과 같은 글을 쓴다.

모든 범죄를 "범죄적인" 방식으로 설명하면서, 무가치는
아다치 형은 존재적인 변질의 심의를 하려고, 궁극적으로
타자성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방구를 통해 여객기 폭탄
범죄가 혁명적 의미를 가져 왔다 보여준다. 이윽의 혁명적
-범죄의 폭음-은 테러리즘의 양면적 구조를 반대하는 상징으로
뒤늦게 이 세상에 알려졌지만, 이제 알게 모든 범죄는 어느 정도
문자화하여 "범죄적"일 수밖에 없는지를 논한다.

5월 30일, 텔아비브 로드 공할, 오후에서 도착한 비행기에
타고 있던 일본인 승객 세 명이 기관총과 수류탄을 꺼내 수화
물 수취 공간에 있던 근무자에게 총을 쏘기 시작한다. 승객 기
준대 스물네 명이 목숨을 잃고, 그 가운데 열아홉은 루에르
포르코에서 온 전주교 승객들이다. 범인 셋 가운데 유일하
게 살아남은 오카모토 고조가 체포당한다. PLFP는 5월 31
일 자 성명을 통해 자신들이 공격을 저질렀음을 주장한다. 이
스라엘 당국은 오카모토 고조와 공범들이 적군과 소속으로
레바논의 팔레스타인 훈련장에서 교육과 훈련을 받았다고
발표한다. 중동 지역의 갈등에서 역사상 처음 일어난 자살의
범으로 선포되는 로드 공할 학살은 서구 전체의 비난을 끌어
내게 되지만, 당시 아랍권 대다수는 이를 성공으로 여겼다.
오카모토 고조는 감옥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
다. "하지만나 살 훈련지에서 일어난" 연합적군 사건이 있었
다면 로드 공할 습격도 없었을 것이다." 수 년 뒤, 시게노부
후사코는 <바이니치 일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사건
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하주나에서 일어난 숙청 사건
의 오점을 찾기 위해서는 "진정한 혁명가의 죽음이 무엇인
지를 전 세계에 보여주어야" 했다고.

1973. 3월 1일, 시게노부 후사코가 담긴 배를 낚는다.
배이라는 이름은 혁명을 뜻하는 일본어 단어 '카쿠
배이'와 1972년 5월(메이) 로드 공할에서 일어난 사건을 함
조한다. '카쿠배이'에서 '배이'는 "혁명"을 뜻하기도 한다.
아이의 아버지는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은 팔레스타인 전투
요원이다.

7월에는 일본 항공 여객기가 네덜란드에서 납치당하는
사건이 벌어진다. 승객들은 리비아의 벨가저에서 풀려나며,
다국적 조직의 일본인 리더인 하루오카 오사부가 활주로 위
에 놓인 빈 여객기를 복파한다. 납치범들은 자신들을 '천령
지역의 아들들'이라고 밝힌다.

1974. 1월, PLFP 소속의 팔레스타인-일본 합동 조직이
싱가포르에 있는 벨 사 정유시설을 파괴하고 선원
다섯 명이 한 개리션을 납치해 블랑과 남예멘으로의 안전한
이동을 대가로 인질을 풀어준다.

아다치 마사오는 선원 다류멘테리안 <적군파 / PLFP
세계전쟁선언>을 촬영하기 위해 베이루트도 들어간다. 영화
는 제작되지 않았고, 리바논에서 촬영한 분량은 내전과 이스
라엘 점령 기간 중 세 곳의 다른 장소에서 파괴당하고 만다.
아다치 마사오는 이후 26년 동안 일본에 들어가지 않는다.

파리에서는 마쓰다 마사오를 모함해 일본인 공작대로
의심받는 인물들이 경찰에 붙잡혀 일본으로 추방당한다.
조직의 지도자로 여겨진 아마다 요시아키는 체포된다. 9월
13일, 일본인 공작대 세 명이 네덜란드 헤이그의 프랑스 대
사관을 습격한다. 이 작전 또한 PLFP의 계획으로 이루어지
며, 작전에 쓰인 무기는 카를로스라고 알려진 테러수범과 테
러리스트 요원이 제공했다. 인질극은 아마다 요시키와 30만
달러, 비행기 사육을 조건으로 대사와 직원들이 풀려나기 전
까지 며칠 동안 이어진다. 남예멘 정부가 아랍 공할에 비행
기가 내리는 것을 거부하여 비행기는 다마스쿠스로 기수를
돌린다. 리비아 정부는 비-혁명적인 돈을 불감하도록 한다고 신
포하며 일본인 일당이 돈을 포기하도록 강요한다.

헤이그 대사를 접기 중, 아다치 마사오는 파리에서 머무르
며 인질극 범인들을 대면해 성명을 작성한다. 레바논으로 들
아온 그는 새로운 집단인 '일본 적군파(JIRA)'의 대표인이
된다. 일본 적군파는 시게노부 후사코가 이끄는 맑스주의 국
제주의 혁명 집단이다. '아랍 적군파'로 불리기도 하는 JIRA
는 1971년부터 시게노부 후사코를 따르기 시작한 실어 명의
단원들로 이루어진다. 일본 적군파는 로드 공할 사건을 포함
해 앞서 PLFP가 계획, 주도하고 일본인 공작대가 관련된 여
러 작전에 대한 책임을 소급하여 주장한다. 도쿄의 관리들은
후사코 시게노부가 일 순위도 클리칸 적군파 테러리스트 수
배 정단에 아다치 마사오를 추기한다. 이들의 사건은 일본
전역의 경찰서에 붙은 지령수배자 명단에 실리게 된다.

1975 8월 4일, JRA 조직이 쿠알라룸푸르의 미국 영사관
과 스웨덴 대사관을 점거한다. 일본 정부는 인질 50
명을 교환하는 조건으로 1971년 겨울의 사건과 아시아 산장
포위에서 살아남은 연합군군 단원인 반도 쿠니오를 비롯해
두족 중년 전투원 다섯 명을 석방하는 데 동의한다. 이들은
말레이시아로 비행기로 이동한 뒤 인질과 당사자들과 함께
베이루트에서 JRA에 합류한다. JRA 측에서 석방을 요구
한 다른 두 전투원은 말레이시아로 가기를 거부하고 구금 상
해로 일본에 머무르기로 한다.

1977 9월 28일, JRA가 일본항공 472편을 납치해 방글
라데시 다카에 착륙한다. 일본 정부는 몸값 600만
달러를 지불하고 죄수 여섯 명을 석방하기로 한다. 석방된 죄
수 중 한 명은 오쿠다이라 준코로, 로드 공할 학살 사건 도중
사망한 오쿠다이라 츠오시의 동생이다.

1982 6월,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를 점령한 뒤 팔레스
타인군을 제거하기 위해 베이루트로 진군한다. 시
계노부 후사코는 유럽으로 피신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
의 발인 에이. 아다치 마사오, 리비아에 있던 JRA 대부분이
합류한다.

1983 시계노부 후사코는 일본 기자회견의 인터뷰 도중 자
신의 운동이 "절대적 공포를 자아내는 방식을 내버
놓았다"고 선언한다. 자신의 권술이 새로운 단원을 찾거나
대중적 지지를 끌어 올리는 데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식한 셈이다. 몇 달 뒤,
JRA는 "명확로운 방법은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다시 무
장투쟁을 전개하겠다는 성명을 낸다. JRA는 일본의 좌익
잡지에 도움을 구하는 광고를 싣는다.

사후에도 있는 곳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후자의 한테만 기해
한어는 다른 것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1985 로드 공할 사건에서 살아남은 오카모토 고조가 이
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죄수 교환으로 풀려나
고, 리비아에서 시계노부 후사코에 합류한다.

1986 헤이그 대사관 점거 중 프랑스 당국에 의해 석방되

1996 이 이후 싱가포르에서 일어난 쉐 샹 공격에 가담한
JRA 요원 아마다 요시아키가 일본의 한 경찰서에
나타나 자수한다. 몇 달 뒤, 1973년 JRA 최초의 비행기 납
치를 주도한 마루오카 오사무 또한 가짜 신분증으로 일본에
들어온 뒤 체포당한다.

일본 직군파는 점차 민족주의적으로 변해가는 팔레스타
인 문제에 거리를 두면서 조직 차원에서 이와 관련한 어떠한
의견에도 책임을 주장하지 않기로 한다. 그럼에도 JRA 단
원들은 이후 수년 동안 반세계주의 테러 공격에 여러 차례 가
담한 것으로 의심받으며, 자카르타에 있는 일본, 캐나다, 미
국 대사관에 대한 백격포 공격과 1987년 로마 소재 영국, 미
국 대사관에 일어난 비슷한 형태의 공격, 1988년 다섯 명의
사상자를 낸 나폴리 미군취문회의 폭탄 공격에서 용의자로
의심받는다.

배를 탄 장비의 물과, 그리고 좌익 무장 조직을 지원했던
동유럽의 여러 비밀 안보 기구 와해는 극동 지역의 정치적 여
향을 미친다. 첫 번째 걸프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과 PLO(팔
레스타인 해방 기구)가 맺은 오슬로 협정은 아랍 국가 정
부들과 미국의 관계를 바꾸며, 레바논에 근거를 둔 테러 조직
들의 별갈과 재정적 전망을 엄청나게 복잡하게 만든다.

1995년, 1977년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일어난 인질 교
환으로 일본 당국이 석방한 JRA 전투원인 에키다 유키코가
부쿠레슈티에서 체포된다. 현지 경찰은 에키다 유키코의 소
지점에서 컴퓨터 디스크를 찾아내는데, 여기에는 일본어를
하는 내국인을 모집하려는 새로운 조직의 선언문이 담겨 있
다. 이는 후시 대공명의 '신세계 질서' 체제로 인해 급변하는
상황에서 다시 일본에 초점을 맞추려는 변화의 조짐을 알린
다. 이를 위한 보집 전단지도 일부에는 이런 말이 쓰였다.

백명의 사나리라는 명화 그랜드 같은 것으로 쓰여 있어야 한다.

1997 아다치 마사오, 오카모토 고조, 그 외 세 명의 일본
직군파 전투원들이 베이루트에서 레바논 당국에 체
포된다. 이들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상 년 동안 감
옥 선세를 본다.

2000 아다치 마사오와 동료 세 명이 요르단으로 추방되
며, 그 즉시 일본 경찰로 가득 찬 러시아 전세기
갑박가 갑박로 드로에 끌려간다. 심각한 정신 질환을 앓게 된
오카모토 고조는 베이루트 체류를 허가받고, 정치 난민이자
"영웅" 자격으로 레바논 시민권을 받는다.

11월, 일본 오사카의 한 주민이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발코니 밑에 이사를 온 여자가 시게노부 후사코인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한다. 경찰은 반선반의화면에서도 해당 아파트를 감시하며, 감시 중인 집에서 나온 쓰레기에서 일본에서 가장 위험한 인플루엔자균과 일치하는 조각을 찾아낸다. 11월 7일, 시게노부 후사코는 오사카 외곽의 한 호텔에 체포된다. 다음날 아침, 시게노부 후사코는 자신의 범죄 사실을 모두 이야기하며 서서 호소를 나간다. 인도에 닿는 순간, 그녀는 체포당한다. 체포 소식은 전국적 현세이전을 일으킨다. 전을 고속철도 차량을 통해 도쿄로 이동하는 모습은 텔레비전에 생중계된다. 11월 16일 진행된 공소에서, 시게노부 후사코는 일본 적군파가 테러리스트 조직도 “괴물”도 아니라고 밝히는 선언문을 읽는다. 그녀는 “최도적 황제 일본 적군파의 무력에 불합한 무고한 이들의 정신의 독재적 고문”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 아사히 산장 사건이 알려진 뒤, 좌파 대부분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지 않는 혁명은 혁명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외쳤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JRA는 “아말 열보에서 무죄를 선언함으로써” 저항의 불꽃을 지펴나갔다. 시게노부 후사코의 진술 또한 그녀의 복귀를 언급하고 있다.

일본으로 들어오는 것이 중요한 목표가 되었습니다. 지금에서는 조금씩이 무죄를 선언하는 데도 필요한 조건들을 채우고 있습니다. 체포당하고 있고, 무기 없이, 반란적으로, 전혀 새로운 채로 있습니다. 예상했던 시기와 달리 체포당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 조치는 조심되었습니다. [...] 오사카에서 인형의 몸과 함께 살고, 우리는 우리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새로운 두들음을 찾아 해방을 합니다.

2001 베이루트 주재 일본 대사관에서, 27세의 아메리칸 대학교 학생이 일본인 변호사를 대동한 채 나리타 본인이 시게노부 후사코의 딸 시게노부 메이라고 정식으로 선언하고, 일본 시민권을 신청한다. 몇 주 뒤, 시게노부 메이는 베이루트에서 녹화된 아사히 텔레비전과의 인터뷰를 통해 최초로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고 자신의 이야기를 전한다. 인터뷰는 시게노부 메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도쿄로 향하는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는 사이 일본 전역에서 방송된다. 나리타 공항에서는 엄청난 수의 텔레비전 카메라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

4월 14일, 시게노부 후사코는 감옥에서 팩스로 보낸 설명을 통해 일본 적군파의 해체를 발표한다. “이것이 일본 적군파가 보내는 마지막 설명이 될 것입니다.”

2002 도쿄에서 열린 재판에서, 아다치 마사오는 여권발급 위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는다. 이미 수감 상태에 보낸 적이 없었던 그를 인정받아 석방된다. 2006- 1974년 태이그에서 일어난 프랑스 대사관 점거 사건에 대한 시게노부 후사코의 재판이 여권 위조, 살인미수 혐의도 20년 형을 선고하며 마무리된다. 2010년, 대법원은 판결을 존치한다.

일본 정부는 아다치 마사오가 뉴욕 대학교에서 진행되는 각종 상설회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여권 발급을 거부한다. 아다치 마사오는 “미국 관관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에서 아다치 같은 말을 쓴다.

여권은 영토와 국경을 건너는 데 필요한 도구입니다. 여권 없이는 이 세상에 살 수 없습니다. 여권 다시 한번 세상을 밟아 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화를 감독한 이후 삼십 년이 지난 2006년, 아다치 마사오는 보트 공항 학살에서 살아남은 가해자인 오카모토 고조가 이스라엘에서 13년 동안 억류된 것에 감동을 받은 이야기, <괴수 / 테러리스트>를 제작하기 시작한다. 영화는 루이 오귀스트 블랑키가 1872년에 쓴 철학 텍스트인 <별들을 통한 열편>을 느슨하게 차용한다. 이야기는 자신의 존재와 시대, 혁명의 의미에 질문을 던지는 주인공이 감금, 고문당하고, 광기로 전락하는 내용이다. 아다치 마사오는 현재 다음 영화인 <메비우스의 단상>을 작업 중이다. 이 영화는 무장투쟁과 2011년 “아랍의 봄”에 관한 블랙 코미디이다.

시게노부 메이는 일본에 영구 정착하고, 2002년에는 <비밀들— 팔레스타인으로부터 벗어나의 나라까지, 어머니와 함께한 28년>이라는 제목의 회고록을 발간한다. 오우라로부유기가 감독해 2006년 11월에 개봉한 영화 <9/11-6/15 일본 자살 협정>에서는 본인으로 등장했고, 외계스케이팅에 관한 영화 <오지>에서는 텔레비전 스포츠 기자 역을 맡았다. 텔레비전 방송인 <아사히 뉴스+>에서 기자, 정치 평론가, 증언 전문가로 활동하며, 2011년에는 도시사대학에서 매체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는다.

ERIC BAUDELAI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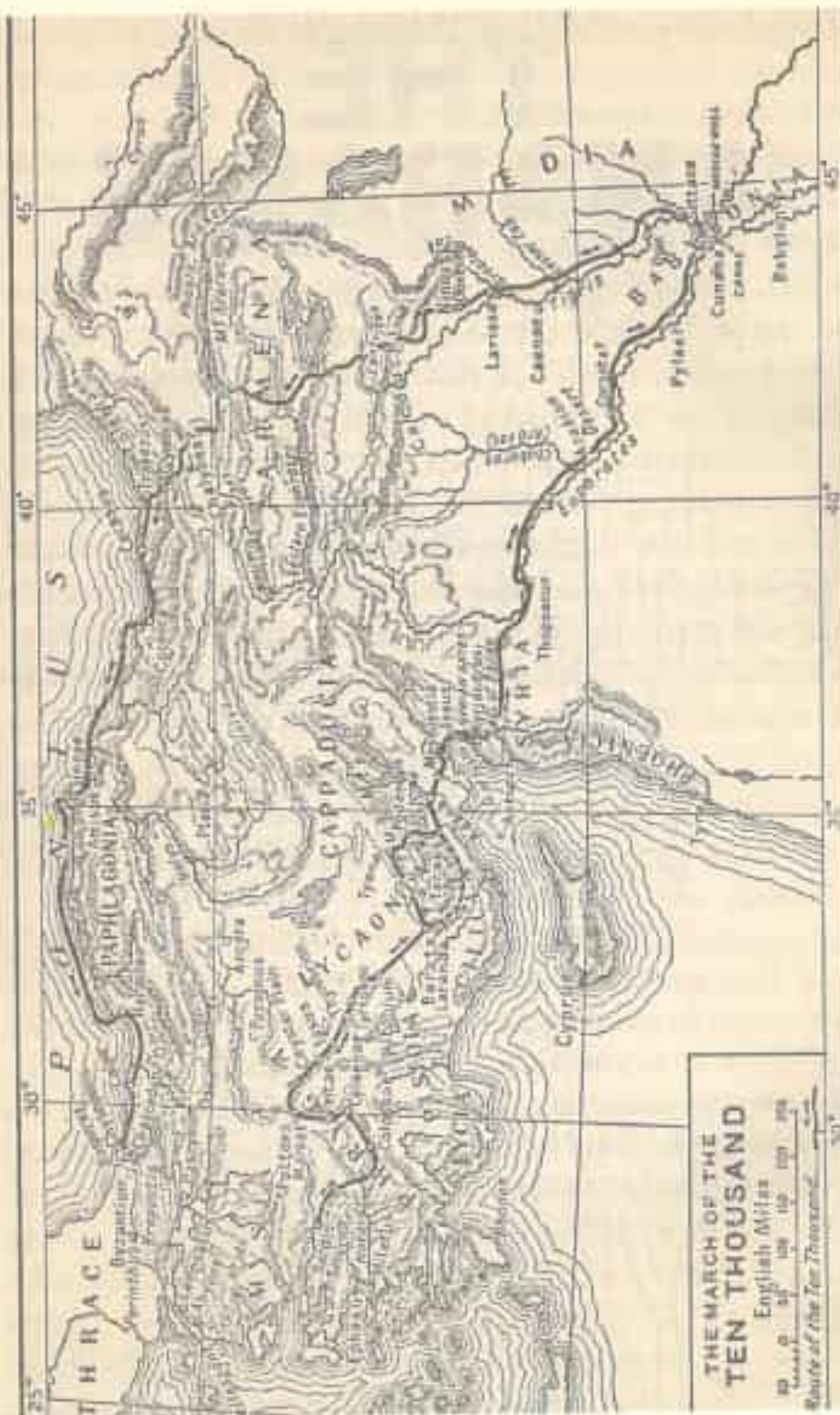
**THE
ANABASIS
OF MAY
AND
FUSAKO
SHIGENOBU,
MASAO
ADACHI,

AND
27 YEARS
WITHOUT
IMAGES**

The Anabasis of May and Fusako Shigenobu, Masao Adachi and 27 Years without Images, 2011, Eric Baudelaire.
An installation (in part) of a film, some subsequent prints and this (photo)

Design: Reginald Chronologos, Eric Baudelaire
Translation: Clarence Melmonian and Jean-Jacques Boissier

Published by Galeria Jume de Alsogar, Madrid, in October 2012.



Reproduced from Bury's *History of Greece* by courtesy of Macmillan & Co. Ltd, London

Anabases: A Chronology

401 Ten thousand Greek mercenaries retained by
to 399 Cyrus the Young, the king of Persia's brother,
B.C. march across Anatolia. As they cross the Tigris
near Babylon, Cyrus reveals his intention to seize
the throne from his brother Artaxerxes II. At the battle
of Cunaxa, the Greek mercenaries outmaneuver the Per-
sian army, but Cyrus is killed as he charges the king.
The sudden death of the commander who brought the Greeks
to Persia, and whose service they were in, marks the begin-
ning of a journey known as the "anabasis": an unguided
wandering through unknown territories that ends when
the Greeks reach the sea, leading them home.

391 Period during which the *Anabasis* is written, ac-
to 371 ccount of the famous retreat of the Ten Thousand.
B.C. The military memoir is attributed to Xenophon,
a student of Socrates, despite being signed by a
mysterious Themistogenes—a pseudonym intended to
lend objectivity to a story that Xenophon not only chron-
icles but in which he also plays a leading role. Having
joined Cyrus' expedition as a simple observer, Xenophon
is eventually elected rear-guard commander by the rui-
ed Greek mercenaries and becomes a protagonist of
their journey. "Anabasis" names a movement towards
home of men who are lost, outlawed, and out of place. In
Xenophon's memoir, the term symbolizes the collapse of
a sense of order that gave meaning to the Greeks' pres-
ence in Persia. In a single instant, their status shifted
from that of heroes to strangers in a hostile land. Like
the voyage recounted in the *Odyssey* three centuries ear-
lier, the *Anabasis* transcends the military memoir form
to become a much-referenced literary allegory. The name
comes from the Greek verb *anabaino* which means at
once 'to embark' and 'to return.' For the lineage of authors
who have since appropriated the term, *anabasis* contains
two linked yet seemingly opposed literary motifs: a quest
for home and the invention of a destiny in the new.

1924 Future Nobel laureate Alexis Léger, using his
pen name Saint-John Perse for the first time,
publishes the collection *Anabasis*, inspired by a journey
in central Asia. T.S. Eliot's 1930 translation of the title po-
em includes these verses:

A country here, not
mine. What has the world given me but
this emptying of ground?

1963 Paul Celan (the pseudonym used by poet Paul
Ansel) publishes *The No-One's-Rose* which in-
cludes a poem named *Anabasis*. Michael Hamburger's
translation from German reads:

This
narrow sign between walls
the impossible-true
Upward and Back
to the hours bright future.

There

Ayilable-
mole, non-
coloured, far out
into the unswigited

Time
kings,
expeller of custom-things
with those in each reflexes leaping and
lovely for seconds only (light)
hollows (dime,
dime, me,
wide suspect
car)
re-
sented, re-
deserted, ours.

Visible, audible thing, the
non-
word growing true

Together

1999 In a series of conferences at the Collège Inter-
national de Philosophie on ways in which the twen-
tieth century "reflects upon itself," philosopher Alain
Badiou uses the *anabasis* as an allegory to describe the
trajectory of a century drawing to a close. The seminar's
eighth chapter is named *Anabasis*: for Badiou the term,
in the movement it names, "leaves undecided the parts
respectively allotted to disciplined invention and uncer-
tain drifting. In so doing, it constitutes a disjunctive syn-
thesis of will and wandering." *Anabasis* is described as
an itinerary into the new which isn't simply a return be-
cause it "invents the path, without knowing whether it is
a path home. *Anabasis* is the free invention of a mean-
dering which will have been a return, a return which, pri-
or to the wandering, did not exist as a return."

Masao Adachi, Fusako & May Shigenobu: A Chronology

- 1939 Masao Adachi is born in Fukuoka, Japan.
- 1945 Fusako Shigenobu is born in Tokyo, Japan.
- 1959 Masao Adachi enrolls at Nihon University in the Film Studies program.
- 1965 Fusako Shigenobu enrolls in the history and political economy programs of Meiji University.
- 1967 After having directed several acclaimed experimental films including *Rice Bowl* (Wan, 1961) and *Blocked Vagina* (So-in, 1963), Masao Adachi begins a long series of collaborations, mostly as a screenwriter, with Koji Wakamatsu, an emerging master of the "pink films" (*Pinku Eiga*) exploitation genre.
- 1968 Throughout Japan, national left-wing student groups organize large-scale demonstrations to protest corruption at universities, oppose the renewal of the Japan-US Treaty of Mutual Security (ANPO), and counter Japan's logistical support to the American war in Vietnam. The student movement escalates with violent clashes involving demonstrators, the police, and factions on the far right. The major flashpoints are rallies against the construction of Narita airport, the takeover of Shinjuku station where fuel trains transit to supply the US air force, and the occupation of Tokyo's elite Todai University.
- 1969 Masao Adachi writes and directs *Female Student Guerrillas* (*Jōgakusei Guerrilla*), the first of several radical political "pink" films that uncannily foreshadow future political developments in Japan. Depicting a group of high school seniors who steal army weapons and set up a guerilla camp in the mountains, the film also establishes the twin themes of several later works: sexual liberation and revolutionary politics, with the thirst for social emancipation and surges of violence as pervasive leitmotifs. As distributors begin to blacklist films written by Adachi as too subversive, Wakamatsu suggests that Adachi sign the screenplay for *Female Student Guerrillas* (and several later films) under the pseudonym Izuru Deguchi.

Meanwhile, a number of radicalized left-wing factions emerge from within the student movement, battling each other in violent clashes. The police storm the student occupation of Todai University after a siege lasting several months. As the police crackdown intensifies and older New Left organizations fracture, the Red Army Faction (*Sekigun-ha*) is founded as an underground movement dedicated to armed revolutionary struggle. Fusako Shigenobu becomes an active member in Tokyo. In November, fifty-three RAF militants are arrested as they prepare an attack against the Japanese prime minister.

Masao Adachi, as part of a filmmaking collective that includes anarchist theorist Masao Matsuda, co-directs *A.K.A. Serial Killer* (*Ryūkyōshi Renzoku Shasarisanda*). The 86-minute montage of color landscapes shot in fifty-five locations across the Japanese archipelago, retraces the life-long vagrant itinerary of a young man named Norio Nagayama, from his birth in Hokkaido to his arrest for murder in Tokyo. The film opens with a voiceover by Masao Adachi:

In the fall of 1968, four murders took place in four cities.
In all four, the same gun was used.
In the spring of 1969, a 18-year-old boy was arrested.
He became known as "serial killer."

By focusing its social and political critique of alienation exclusively on landscape rather than people, *A.K.A. Serial Killer* represents an aesthetic and political shift in documentary forms. In a simple yet radical gesture aimed at reconceptualizing the militant ideal of film-as-weapon, Adachi and Matsuda introduce *fukuroku*, or landscape theory, as a way of capturing the ubiquity of state power, by turning the camera towards everyday scenery.

1970 On March 31st, nine Red Army Faction members carry out the spectacular highjacking of the Japan Airlines Yodo flight and land it in North Korea. With the ANPO treaty on its way to ratification despite the widespread mobilization against it, the perceived insufficiency of mass student mobilization, and the heavy police repression of the student movement lead to a shift towards armed struggle. The Yodo highjacking signals a turn towards media-focused direct action by armed groups. Their violent tactics escalate from weapon thefts and bank heists to bomb attacks against police stations.

1971 While the Yodo operation is perceived as a propaganda success by the Red Army Faction, its practical result is the decapitation of the group. With its leadership stuck in North Korea, the RAF appoints new, contested leaders. Fusako Shigenobu argues for the need to tie the group's strategies to an internationalization of the revolution. Despite the RAF leaders' objections, she makes plans to travel abroad and forge ties with other radical organizations. Her police file prevents her from obtaining a passport, but by marrying Tsuyoshi Okudaira, a comrade without a record, she officially becomes Fusako Okudaira. On February 28th, she and Okudaira leave Tokyo for Beirut under the pretext of a honeymoon. There they link up with the Marxist Popular Front for the Liberation of Palestine (PFLP).

In Tokyo, the Red Army Faction merges with the Revolutionary Left Faction to form the United Red Army (*Rengu Sekigun*). Pooling funds from bank heists and stolen weapons, the URA regroups and hides at training bases in the remote mountains of central Japan.

Koji Wakamatsu's pink film *Sex Jack* (*Seizoku*), written by Masao Adachi, is selected by the Quinzaine des Réalisateurs at the Cannes Film Festival. With the proceeds from the film's commercial success, Adachi and Wakamatsu stop in Beirut on the way back from Cannes, and begin shooting a documentary about the Palestinian struggle. In Lebanon, the filmmakers hire Fusako Shigenobu, who has been working at the PFLP press office, as an interpreter and guide. The resulting film, shot in Beirut, Bekaa valley, and Palestinian refugee camps in Lebanon and Jordan, combines *Shikoku* landscape imagery with footage of Palestinian guerilla training, interviews with PFLP leaders, theoretical discourse by Fusako Shigenobu, and Red Army Faction speeches in Japan, developing a prototype for a theory of militant news/propaganda documentary.

The *Red Army / PFLP: Declaration of World War* (*Sekigun / PFLP: Sekai Senso Sengen*) opens with newsreel images of the Yodo and recent "Black September" PFLP airplane hijackings, with a voice-over declaring:

The best form of propaganda is armed struggle.

With the film blacklisted from theaters, Wakamatsu and Adachi set up a mobile projection system in a red bus and tour Japan, declaring the screening itself a political form and platform for mobilization. In the October issue of the journal *Film Criticism* (*Eiga Hihyō*), Adachi publishes passages from his travel journal:

I was concerned with two thoughts: why should I try to translate into "words" the strategic activities of the PFLP [...] and did I not risk collapsing if I ignored my physical limits and continued filming, Wakamatsu in hand, while undergoing guerilla training.

1972 While training at the Haruna Mountain base in January and February, fourteen members of the United Red Army are beaten and tortured to death by their comrades in a series of sadistic self-criticism sessions and purges. Several members whose self-critique is deemed insufficient (including one militant's wife who is eight months pregnant) are tied to a tree and left to freeze to death in the woods.

On February 16th, the two leaders who had orchestrated the purge, and six surviving *Rengu Sekigun* members are arrested by the police, while five others flee, taking refuge at the Asama Sansō mountain lodge and holding the caretaker's wife hostage. After a ten-day pitched battle during which two police officers and a civilian are killed, the remaining United Red Army militants are captured.

The discovery of the shallow graves from the purges at Haruna Mountain, and the continuous television coverage of the Asama Sansō siege cause an intense public backlash against radical leftist groups in Japan, and mark the beginning of the end for the New Left and progressive movement.

During the same period, under the pseudonym De Deguchi, Masao Adachi writes the screenplay of the Wakamatsu Production film *Ecstasy of the Angels* (*Tenishi No Kôkotsu*) in which he also plays a small role. Several Red Army Faction members play supporting roles as activists in an underground organization with code names based on 19th century French revolutionary Louis Auguste Blanqui's secret Society of Seasons (*Société des Saisons*). After stealing bombs from a US Army base, members of the "October" cell are brutally assaulted by a rival faction. The film is built on a sequence of explicit sex scenes and theoretical discussions among the militants who opt for a nihilist campaign of random public bombings, ending in a crescendo of explosions over a manic free jazz soundtrack. A police station in Shinjuku, which is blown up in the film, later becomes the real target of a bombing on Christmas Eve.

In issue 93 of the magazine *Art Theatre Guild Journal*, critic and fellow traveller Masao Matsuda, who had co-directed *A.K.A. Serial Killer* with Adachi, writes:

Describing all crime as a "criminal" way, the Wakamatsu-Adachi team deepens its ontological reflection and, ultimately through the study of terrorism's dualist structure, continues to relentlessly show why all crime is revolutionary. Their new film, *Ecstasy of the Angels*, follows the circuit of terrorism's dualist structure in the opposite direction, and raises new, audacious questions, namely to what extent is every revolution necessarily "criminal"?

On May 30th, at Lod airport near Tel Aviv, three Japanese passengers arriving on a flight from Rome retrieve machine guns and grenades from their luggage and open fire on the crowd in the baggage area. Twenty-six passengers are killed, including nineteen Catholic pilgrims from Puerto Rico. Kozo Okamoto, the only one of the three assailants to survive, is arrested. In a statement on May 31st the PFLP claims responsibility for the attack. Israeli authorities announce that Kozo Okamoto and his comrades belong to the Army of the Red Star, and received training and instructions from Palestinian camps in Lebanon. The Lod airport massacre, described as the first suicide mission in the history of the unfolding Mideast conflict, draws unanimous condemnation in the west, but is greeted as a success in much of the Arab world. In an interview given from prison, Okamoto declares "if there had not been a Rengo Sekigun purge (in the Harima mountain camp) there would have been no Lod airport attack." Years later, in an interview with the Japanese *Mainichi* Sunday newspaper, Fusako Shigenobu explained that in order to erase the faults of the mountain purges, there was a need to "show the world what the death of a true revolutionary meant."

1973 On March 1st, Fusako Shigenobu gives birth to a daughter named May (also spelled Mei) Shigenobu. The name is both a reference to the Japanese word for revolution, *kakumei*, where the kanji character "mei" means "life," and a reference to the events of May 1972 at Lod Airport. The father is a Palestinian militant whose identity is not revealed.

In July, a Japan Airlines flight is hijacked over the Netherlands. The passengers and crew are released in Benghazi, Libya, where Osamu Muruoka, the Japanese leader of the international commando, blows up the empty plane on the tarmac. The hijackers identify themselves as Sons of the Occupied Territories.

1974 In January, a joint Palestinian-Japanese commando under PFLP leadership sabotage a Shell oil refinery in Singapore and hijack a ferryboat with five crew members, releasing them in exchange for a ransom and safe passage to South Yemen.

Masao Adachi returns to Beirut to film a sequel to his propaganda documentary *The Red Army/PFLP Declaration of World War*. The film is never made, and the footage he shoots in Lebanon is destroyed on three different occasions during the civil war and Israeli occupation. Adachi will not return to Japan for twenty-six years.

In Paris, a group of suspected Japanese militants including Masao Matsuda is rounded up by the police and deported to Japan. The presumed cell leader, Yoshiaki Yamada, is arrested. On September 13th, a group of three Japanese militants storms the French Embassy in The Hague. The operation was once again planned by the PFLP and the weapons were supplied by the Venezuelan terrorist operative known as Carlos. The hostage crisis lasts several days before the ambassador and staff are released in exchange for Yoshiaki Yamada, \$300,000 and the use of a plane. The government of South Yemen refuses authorization to land in Aden, so the plane is diverted to Damascus, where the government declares hostage-taking for money un-revolutionary, and forces the Japanese to give up their ransom.

During The Hague embassy occupation, Adachi is in Paris, where he makes announcements on behalf of the hostage takers. Upon returning to Lebanon, Adachi formally becomes the spokesman for a new group, the Japanese Red Army (*Nihon Seikigun*), a Marxist internationalist revolutionary outfit under the leadership of Fusako Shigenobu. Sometimes referred to as *Araba Seikigun*, the JRA comprises a dozen militants who have joined Shigenobu from Japan since 1971. The Japanese Red Army will retroactively claim responsibility for a number of earlier PFLP-planned and led operations in which Japanese militants were involved as soldiers—including the Lod airport massacre. Authorities in Tokyo add Adachi to the list of sought *Seikigun* terrorists topped by Fusako Shigenobu. Their pictures are placed on wanted posters displayed in police stations across the country.

1975 On August 4th, a JRA commando occupies the US Consulate and Swedish Embassy in Kuala Lumpur. In exchange for the fifty hostages, the Japanese government agrees to release five incarcerated militants including Kimio Bando, a United Red Army soldier who had survived both the 1971 winter purges and the Asama lodge siege. They are flown to Malaysia, and on to Beirut with the hostage-takers, rejoining the ranks of the JRA. Two other militants, whose release the JRA also demanded, decline to go to Malaysia, preferring to remain incarcerated in Japan.

1977 On September 28th, the JRA hijacks Japan Airlines Flight 472 and lands in Dhaka, Bangladesh. The Japanese Government agrees to pay a \$6 million ransom and free six prisoners, including Junzo Okudaira, the younger brother of Tsuruyoshi Okudaira who died during the Lod Airport massacre.

1982 In June, Israel occupies southern Lebanon and pushes on to Beirut to dislodge Palestinian forces. Fusako Shigenobu flees to Europe, and soon joins her daughter May, Masao Adachi, and most the JRA in Libya.

1983 In an interview with a Japanese journalist, Fusako Shigenobu announces that her movement has "renounced the way of absolute terror," acknowledging that the tactics had failed to gain new members or increase popular support, and recognizing the need to find new approaches. Within a few months, the JRA issues a statement announcing a return to armed struggle, since "peaceful methods are not effective." A help-wanted advertisement for the JRA is printed in a left-wing magazine in Japan:

We are based in the middle of nowhere but if you come to join us it won't be difficult to locate us.

1985 Surviving Lod airport attacker Kozo Okamoto is freed in an Israeli-Palestinian prisoner exchange and joins Fusako Shigenobu in Libya.

1986 Yoshiaki Yamada, the JRA soldier freed by the French authorities during the embassy crisis in

1996 The Hague, and later involved in the Shell sabotage in Singapore, walks into a police station in Japan to turn himself in. Osamu Maruoka, who had led the first JRA airplane hijacking in 1973, is captured a few months later after having also returned to Japan under a false identity.

The Japanese Red Army distances itself from the increasingly nationalist Palestinian cause, and ceases to claim responsibility as an organization for any further operations. Individual JRA members are nonetheless suspected of participating in a number of anti-imperialist terrorist attacks over the next few years, including a mortar attack on the embassies of Japan,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in Jakarta, a similar attack on the British and US embassies in Rome in 1987, and the 1988 bombing of a US military recreational (USO) club in Naples that killed five people.

The collapse of the Berlin Wall and of a number of Eastern European security services that had provided support for left-wing armed organizations alters the political dynamics in the Near East. The first Gulf War and the signing of the Oslo Accords between Israel and the PLO further alter the relationship between Arab governments and the United States, greatly complicating the logistical and financial prospects of terrorist organizations based in Lebanon.

In 1995, Yukiko Ekita, a JRA militant who had been released by Japanese authorities during the Dakhla hostage exchange of 1977, is arrested in Bucharest. The police find a computer disc in her luggage containing drafts of a manifesto for a new organization aiming to recruit from a domestic Japanese readership, signaling a shift in focus back towards Japan after the sea changes of the New World Order. The leaflet states in its introduction:

The scenarios of a revolution must be written in the manner of a film script.

1997 Masao Adachi, Kozo Okamoto and three other Japanese Red Army soldiers are arrested by Lebanese authorities in Beirut. They are charged with passport violations and jailed for three years.

2000 Masao Adachi and three of his comrades are deported to Jordan where they are immediately taken to a chartered Russian airplane full of Japanese police officers, and forcibly flown to Tokyo. Kozo Okamoto, who has become severely mentally ill, is allowed to remain in Beirut and is granted Lebanese citizenship as a political refugee and "hero."

In November, a resident of Osaka, Japan, informs the police of his suspicions that the woman who has moved into the apartment across the hall from him in July is Fusako Shigenobu. The police are dubious but nonetheless place the apartment under surveillance and retrieve garbage containing a fingerprint that matches the file of Japan's public enemy number one. On November 7th, Fusako Shigenobu checks into a hotel in the outskirts of Osaka. In the morning, she signs out of the hotel under her legal name, Okinaka. When she reaches the sidewalk, she is arrested by the police. News of her capture is a national sensation. Her transfer to Tokyo on a dedicated high-speed train is broadcast live on national television. At her arraignment in court on November 16th, Fusako Shigenobu reads a statement in which she declares that the Japanese Red Army is neither a terrorist organization nor a "monster." She asks for forgiveness "for the mental and physical suffering inflicted upon innocent people who found themselves unwillingly caught up in the struggle of the Japanese Red Army." She explains that after the Azuma lodge events came to light, most people on the left abandoned the struggle because "a revolution that does not make people happy is not a revolution," yet the JRA kept the flame alive by "pursuing the struggle on Arab land." Shigenobu's statement also addresses her presence in Osaka:

Returning to Japan became an important objective for me. Here I wanted to establish the conditions necessary for pursuing the struggle in my own country. I wanted to fight arms, but without weapons, brutally, and under my own name. That was the only point of my return. The opportunity did not arise since I was arrested sooner than expected. [...] After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and the Gulf War, we searched for new means of struggle that would be acceptable in our time.

The Japanese government refuses to issue Masao Adachi the passport he needs in order to attend a screening of his films at New York University. In a "message to the American audience" Adachi writes:

My principle is to see politics and media as one and the same thing. I have never separated them in my thinking. I think it is time to make art again.

Thirty years after directing his last film, Masao Adachi begins production on *Prisoner / Terrorist (Teroristato)* in 2006, a story inspired by the thirteen-year detention in Israel of Kase Okamoto, the surviving perpetrator of the Lod airport massacre. The film is a loose adaptation of Louis-Auguste Blanqui's 1872 philosophical text *Eternity Through the Stars (L'Éternité par les Astres)*. It is a story of confinement, torture, and the descent into madness of a protagonist who questions the meaning of his own existence, of time and of revolution. He is currently working on his next film, *Banquet of Mesias*, a black comedy about armed struggle and the Arab spring revolts of 2011.

May Shigenobu settles permanently in Japan and publishes a memoir entitled *Secrets—from Palestine to the Country of Cherry Trees, 28 years with my mother* in 2002. She plays herself in Nobuyuki Oura's movie *9/11-8/15 Japan Suicide Pact* released in November 2006, and co-stars in a Japanese movie on figure skating, *Couch*, playing the role of a TV sports reporter. She works as a journalist, political commentator and Middle Eastern affairs specialist for TV channel Asahi Newstar, and receives a doctorate in media studies at Doshisha University in 2011.

2001 At the Japanese embassy in Beirut, an undocumented 27-year-old student from the American University, accompanied by a Japanese lawyer, formally declares herself to be May Shigenobu, daughter of Fusako Shigenobu, and applies for Japanese citizenship. A few weeks later, May Shigenobu makes her first public appearance and tells her story in an interview with Asahi Television taped in Beirut. The interview is broadcast in Japan while she is on the plane taking her to Tokyo for the first time. A crowd of TV cameras awaits her arrival at Narita airport.

On April 14th, Fusako Shigenobu announces the dissolution of the Japanese Red Army in a statement faxed from prison, declaring: "This will be the last statement from the Japanese Red Army."

2002 Masao Adachi is found guilty of passport violations at his trial in Tokyo. He is released based on the eighteen months he has already served.

2006 Fusako Shigenobu's trial ends with a sentence to 20 years for passport forgery and attempted

2011 manslaughter for masterminding the 1974 occupation of the French Embassy in The Hague. The Supreme Court upholds the verdict in 2010.